

남원의료원, 전북도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 김수현 기자 | ⓒ 승인 2023.08.23 13:49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장기간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 속에서도 전북도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2021년부터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인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이행도와 특성지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감염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원의료원은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더해져 3회 연속 '가'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장기간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金北日報

남원의료원, 전북도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온신기철 | ① 입력 2023-08-23 15:47 | ② 수정 2023-08-23 15:47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전북도 주관 '2023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의료원은 2021년 이후 전북도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올해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인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이행도와 특성지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감염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원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 확보,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영 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장기간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으로 경영측면에서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송정섭 기자 | 승인 2023.08.23 16:14



박주영 남원의료원 원장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남원의료원은 2021년 이후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인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이행도와 특성지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감염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원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예산 확보,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더해져 3회 연속 최우수 ‘가’ 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장기간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으로 경영측면에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정섭 기자 기자

남원의료원 경영평가 3년연속 최우수 선정 쾌 거

✎ 장두선 ㉠ 승인 2023.08.23 14:33

의료인력 역량향상 등 성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23일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021년 이후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인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이행도와 특성지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감염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예산 확보,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더해져 3회 연속 최우수 '가' 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장기간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으로 경영측면에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장두선 jjnews1@naver.com

남원의료원, 전북도 경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선정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23.08.23 13:53



남원의료원 전경.

남원의료원이 전북도 주관 2023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지난 2021년 이후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남원의료원이 밝힌 올해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인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이행도와 특성지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감염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원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예산 확보를 비롯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더해져 3회 연속 최우수 '가'등급 기관에 선정됐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장기간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으로 경영측면에서 녹록치 않은 여건속에서도 전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목표설정과 관리운영 결과”

남원의료원 도내 유일 3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남원의료원이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3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2일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도 산하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2023년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전 북남원의료원을 비롯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기관 성격에 따라 I유형(경제·산업) 8개 기관과 II유형(사회문화·복지) 8개 기관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등급별 기준점수에 차이를 뒀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3월부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49인의 경영평가단을 통해 서면심사, 현장평가, 기관장 면담평가 등을 실시하고 내·외부 만족도 조사를 거쳐 '22년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왔다.

남원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통지표인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및 이행도와 특성지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감염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원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와 예산확보, 지역 내 보건의료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3회 연속 최우수 '가' 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인구감소와 코로나 등 경영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목표설정과 관리, 운영에서 꾸준한 노력을 쌓고 기울여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빛나고 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장기간의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으로 경영측면에서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3-08-24 12면

<http://sjbnews.com/790264>